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강경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신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¹⁾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동등하게하기 위한 조치의 주요내용

<p>【1】 2009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²⁾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p> <p>①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신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신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임신부의 의료비³⁾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다.</p> <p>② 2009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
<p>【2】 금년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⁴⁾</p>

1) 의료급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한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구성, 2007년 말 기준 총 수급권자 185만 명(전국민의 3.7%).

2) 소요재정: 약 27억원 (2007년 임신, 출산, 산후기 상병 기준 실적(13,315명) × 지원금액(20만원)).

3) 건강보험의 경우 산전진찰 진료비의 약 70%가 비급여 비용임(건강보험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 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결과).

4) 소요재정: 약 8억원(소모성재료 평균가격(5,640원/일) × 대상자수(392명) × 365일).

- ①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⁵⁾
- ② 2008년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시·군·구청에 요양비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 【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 ①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② 이를 통해서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병의원에서도 신분증과 의료급여증, 전산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09.23)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2. 복막투석 관련 참고자료

【1】 투석이란?

- 신장(콩팥)의 기능이 나빠진 경우(예) 만성신부전증 등), 몸 안에 축적되는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법
- 투석의 종류: 복막투석, 혈액투석 등

【2】 '복막투석'이란?

-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투석막(필터)으로 이용하여 혈액 속에 존재 하는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법
- 환자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직접 집에서 투석액 교환 등 자가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3】 '자동복막투석'이란?

- 복막투석은 환자가 직접 투석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3~4번 투석액을 교환하는 불편이 있는데 반해, 자동복막투석은 밤에 기계를 이용, 자동 투석이 가능하므로 감염위험성이 낮고,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편리해짐

【4】 '혈액투석'이란?

- 복막투석과 달리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필터(투석막)를 통해 체외에서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방법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09.23)

5) 환자 1인당 연평균 2,480,520원(월평균 206,710원×12월) 부담